■ 민족문화연구 제87호(2020.05.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285-312.
http://doi.org/10.17948/kcs.2020..87.285

변혁의 주변에서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주체의 다기한 형성과 세대인식의 교차—

허민(許閔)*

목 차

1. 엇갈린 편지—'항쟁 이후'의 세대 갈등
2. 관망・변심・좌절—항쟁의 주변적 존재들
3. 항쟁 이후의 일상과 세대인식의 간극
4. 결론을 대신하며
—변혁의 주변에서 6월 항쟁과 체제 변혁의 의미를 다시 묻는 방법

국문초록

이 논문은 6월 항쟁이라는 변혁의 시간을 통과한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주체(화)의 다기한 형상들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은 대학생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변혁의 인격적 담지자들만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변혁의 문턱에서 망설이던 자들의 혼란을 재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어떤 문학의 정치가 모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있기 보다는 그 주변에서 변혁의 순간을 '관망'하거나 중산층적 욕망에 사로잡혀 '변심'하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전망 상실의 '좌절' 속에서 참여 자체를 망설이던 자들의 여러 사연이 포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

*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노작홍사용문학관 사무국장.

양상에는 주로 6월 항쟁에 대한 세대인식의 격차가 반영되고 있었으며, 이는 운동사적 대의가 일상의 정치로 다시 제기되는 사태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변혁을 모색하던 1980년대 소설들에서는 발언의 가치를 정당히 평가받지 못했던 자들에 대한 문학의 권리를 복권함으로써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장소로부터 문학의 정치성을, 그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6월 항쟁의 (반)정치적 재현 양상의 사회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주제어: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중간층, 중산층, 세대 차, 김향숙, 민주주의, 문학의 정치성, 임수경.

1. 엇갈린 편지—'항쟁 이후'의 세대 갈등

1989년 7월 1일로 예정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대협을 대표하여 북한으로 향한 임수경은 출국 직전, 자신의 부모님께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한다.

>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 이 글을 읽으시며 깜짝 놀라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눈물이 글썽거리실 엄마, 표정이 굳어진 아빠, 침묵으로 일관할 언니, 그리고 오빠, 새언니, 그밖에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우선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딸은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흔히 자신들의 세력만을 고집하려는 자들이 말하는 북한노선을 추종하는 무분별한 학생도 아니고요. (…) 신문기자가 되길 바라신 엄마, 작가가 되길 바라신 아빠, 이제 저는 엄마, 아빠 만의 딸이 아닙니다. 하나된 조국의 자랑스런 딸이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저를 격려해주시고, 떳떳하게 여겨주세요. 언젠가는 이해하시겠지요."[1]

한국외대 불어과 86학번 임수경은 중산층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기자 출신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한때는 저널리스트를 꿈꾸기도 했으며, 어머니께는 미스코리아 출전을 권유받기도 했었다. 1986년에는 KBS의 쇼프로그

1) 임수경, 「북한을 추종하는 무분별한 딸이 아닙니다」, 『한겨레』, 1989.7.1.

램 "젊음의 행진"에 출연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서울올림픽 '우정의 사절'로 활동하기도 했다. 방북 이전의 임수경은 활달한 사회성을 갖춘 '부잣집 자식'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임수경은 북한에서 돌아온 뒤 있었던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평범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저 자신은 "지극히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에서 학업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의 뜻에 거역해 본적도 없고,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지도 않았던 소박한 학생"[2]일 뿐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임수경의 방북은 그녀의 부모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1주일 전 친구들과 남해안 여행을 간다고 10만원을 받아간 수경이가 평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모친은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여권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3]

중산층 가정의 운동권 학생이 부모 몰래 평양으로 향한 이 사건은 금세 세대단절의 지표이자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문단속과 몸단속"이 사회적 의제로 제출되었고, 각 대학 총학생회의 '농활'이나 '공활', '빈활'의 참여도가 부모의 강제로 저하되기도 했다. 가정교육의 부재가 질타되었으며, 어버이들에게 "사랑의 매"가 요청되기도 했다. 반면, 대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무조건 데모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표했으며, '임수경을 좌경용공으로만 몰아붙이는 기성세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4] 운동권 자녀를 둔 '엄마의 눈물'과 '아빠의 침묵'은 자식에 대해 아무

2) 이경주, 「평축 전대협대표 임수경씨 1심 재판 자료」, 『민주법학』 제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0, 286면.

3) 「"엄청난 일을…"가족들 충격」, 『경향신문』, 1989.6.30.

4) 「대학생子女(자녀)"문단속""몸단속"」, 『경향신문』, 1989.7.5; 「학교에만 맡길 것인가」, 『경향신문』, 1989.8.23. 임수경 방북 직후 있었던 대학생 좌담의 내용 일부를 옮기자면 대략 이렇다. "기성세대와 얘기를 하다보면, 심각한 단절감을 느낍니다. 대체로 기성세대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어 발전성 진취성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알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의식화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사회를 바로 안다는 측면에서의 의식이 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도 의식 있는 젊은이들을 무조건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7·7선언 1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통일논의가 위축돼 있습니다. 대학생들 생각에는 정부가 전혀 통일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임수경양 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년 선후배도 세대차 느껴요」, 『동아일보』, 1989.7.4.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자책의 표현이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대 간에 존재했던 사회인식의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임수경은 부모에게 남긴 편지에서 자신은 '범죄자'도 아니며, '북한노선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서술하는데, 이는 분명 자기의 부모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에 대한 항변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고 이때의 기성세대는 "45년간 분단 조국을 물려 준" 세대이자,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정권"을 선출한 세대이기도 했다.[5] 기성세대의 눈에 '운동권 학생'은 '북한 추종자'이자 '극단적 폭력을 추구하는 범죄자'였고, 그런 만큼 임수경은 부모에게 남긴 편지에서나, 1심 재판에서나 자신의 평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수경의 편지가 부모에게 전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는 "사죄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배포한다.

> "국민들께 사죄드립니다. (…) 제 딸은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그에 따른 책임도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막 미성년을 넘긴 나이에 세상물정을 몰라서 저지른 이번 사건이 사회혼란의 불씨가 되고, 활발한 통일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번 사건을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는 무리가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북한당국자에게 말합니다. 나이 어린 학생을 무자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비열한 행위를 이제부터라도 즉각 중지하지 않는다면, 6천만 민족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 또 국내의 북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은 더 이상 허황된 이념에 매달려 나이어린 학생들을 제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과격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면, 우선 여러분부터 그 틀을 견고히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 틀이란 사회의 법과 질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6]

임수경의 편지가 자신의 부모를 향한데 반해, 부친의 편지는 우선 국민들

5) 이경주, 앞의 글, 284면. 아울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는 임수경의 방북과 그에 대한 어른들의 비난에 대해 "기성세대의 최대의 실패작인 남북분단의 역사를 치유하려는 오롯한 열정과 사장,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참된 통일의 길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은 기성세대가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큰마음으로 품어야할 것"이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국민에게 보내는 글」, 『한겨레』, 1989.7.27.

6) 「林양아버지 林判鎬씨 「사죄의말씀」 공개書翰」, 『동아일보』, 1989.7.26.

을 향해있었다. 이 엇갈림의 의미가 중요한 듯싶다. 임수경은 더 이상 '엄마 아빠만의 딸'이 아님을 선포하며, '조국의 딸'로서 통일운동에 나서겠다는 어떤 민족적 사명을 내보인 반면, 그의 부친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딸의 죄를 대속하며, 부모로서의 직분을 강조하는 태도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면서도, 임수경은 부모에게 이해를 구했고, 부친은 국민에게 사죄했다. 임수경에게는 다분히 사회적인 성격의 선언조차도 '가정 내 존재'로서의 위치에서 발화 가능했다면, 부친은 가족이라는 사적 집단의 문제를 대표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남성주체이자 가부장으로서 공론장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임수경은 부모의 이름을 경유해서만 자신에게 부여된 민족적 과제를 내보일 수 있었던 반면—부친은 딸에 대한 사죄에 덧붙여, "북한당국자"와 "국내의 북한 공산주의 추종세력"에 대해서는 경고를, "일부 과격학생들"에 대해서는 당부를 부기할 수 있었던 것일 게다. 그리고 이는 물론 북한과 그 추종세력의 비열한 정치적 현혹이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을 법과 질서를 유린하는 과격분자로 변모케 하고 있다는 기성세대의 시선 속에서 가능한 내용의 발화였다. 공개서한이 자신과 같은 학부모들에게 자녀와의 대화 따위를 촉구하며 마무리될 수 있었던 연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임수경의 방북은 6월 항쟁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과 그를 바탕으로 활기를 찾은 통일운동의 한 면모만을 보여주는 사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사회의 어떤 전환과 분기의 성격을 세대인식의 교차 속에서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임수경 방북사건을 다만 통일운동의 맥락이 아니라—그리하여 정치적인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전환 속에서 초래된 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일상의 영역에서 포착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사례로써 의식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는 항쟁 이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체제 전환 효과를 사회문화적인 규범의 생산 및 그것의 형성과 수용을 둘러싼 계급·계층·세대 간 갈등과 경합의 양상을 표상하거나 유인하고 있는 문학적 재현물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즉 정치적 차원에서 마련된 변혁의 가능성이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생활세계에서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전유되거나 굴절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해야할 것이며, 어쩌면 이런 방법이야 말로 항쟁 이후, 한국사회 전환의 의미를 '아래로부터' 살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6월 항쟁이라는 변혁의 시간을 통과한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주체(화)의 다기한 형상들에 대해 탐구해보려고 한다. 특히 6월 항쟁과 그 이후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은 대학생과 노동자로 대표되는 변혁의 인격적 담지자들만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변혁의 문턱에서 망설이던 자들의 혼란을 재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어떤 문학의 정치가 모색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2장에서는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있기 보다는 그 주변에서 변혁의 순간을 '관망'하거나 중산층적 욕망에 사로잡혀 '변심'하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전망 상실의 '좌절' 속에서 참여 자체를 망설이던 주변적 존재들의 여러 사연들에 대해 우선 탐색해보려고 한다. 이어 3장에서는 "변혁의 주변"이란 맥락을 이어가면서 6월 항쟁에 대한 세대 인식의 격차가 반영되고 있는 소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항쟁 이후의 일상 속에서, 사회 변혁의 의미가 세대 간의 어떠한 차이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는 정치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포착될 수 없는 항쟁의 의미가 저마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변혁을 모색하던 1980년대 소설들에서는 발언의 가치를 정당히 평가받을 수 없었던 자들의 문학적 권리를 일정하게 복권시킴으로써,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장소로부터 문학의 정치성을, 그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해보고 싶다. 이를 통해 항쟁 이후라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고 있던 일상성의 변모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2. 관망 · 변심 · 좌절—항쟁의 주변적 존재들

6월 항쟁을 전후한 한국사회는 정치 · 경제적인 변혁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문학(장)의 구조와 미의식의 변화도 치열하게 행해지고 있

었다.[7] 이를 테면, 6월 항쟁으로 한국사회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정착되었으며, 노동운동 및 통일운동이 진전하고 있었는데, 문학장에서는 이러한 역사 변혁의 사명을 담지할 수 있는 주체 구성의 문제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창비 진영의 민족문학(론)은 민족구성원의 절대 다수이자, 역사발전의 주체인 민중이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때의 민중은 "어느 한 계급 또는 두어 계급"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적·계층적 구성을 지닌 광범위한 연합세력"임을 명시함으로써—민중지향적인—지식인까지 포괄하는 민중 주체에 대한 상상을 정립하고 있었다.[8] 이에 대해 민중적 민족문학론 진영에서는 "지식인들에 의한 대리민중문학이 아닌 생산대중의 주체적인 문학적 욕구와 그 구체적 산물들"이 민족 내부에서 분출되면서 소시민적 민족문학론이 극복·지양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9] 한편 노동해방문학 진영에서는 과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변혁 주체관의 추상성"(민주주의민족문학론)을 반성하고, "노동자 계급의 당파성에 더욱 철저해야한다"는 급진적 주장을 제출하기도 했다.[10] 이처럼 1980년대의 문학장을 지배하고 있던 복수의 민족·민중문학론은 서로 다른 정치적 전망에 입각하면서도 당대의 문학적 사명을 역사변혁의 주체와 이념을 수립하는 과제로써 수렴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1980년대의 민족·민중문학론의 성과는 창작방법에 있어 리얼리즘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리얼리즘이 변혁의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민중문학의 대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창작

---

7) 6월 항쟁이 한국 문학장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허민, 「6월 항쟁과 문학장의 민주화: 해금 전후(사)의 역사인식과 항쟁 이후의 문학(론)」, 『기억과 전망』 2019 겨울호(통권 4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8)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 부정기간행물1호(통권 57호), 창작과 비평사, 1985.10, 20면.

9)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문학예술운동』 제1집, 풀빛, 1987.8, 87-88면.

10) 조정환, 「민주주의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1989.4. 246-247면.

방법에 대한 노력은 진영에 따라 제3세계 리얼리즘, 민중적 리얼리즘, 당파적 현실주의, 노동계급 현실주의 등으로 지칭되는 여러 리얼리즘론을 낳았으며, 여기에는 각각의 논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얼리즘론의 기본 속성, 즉 과학적 현실이해와 변혁사회의 전망에 바탕하고 있다는 공통점"[11]이 의식적으로 사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의 시간 속에서 한국문학의 진전과 전환을 의식적으로 사고하려는 여러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동시기 작품들에 대해서는 당대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를 테면, 백낙청은 6월 항쟁 이후 한국문학이 분명 "새단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실제 성과가 그 이전과 뚜렷이 구별될 만한 수준에 달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우며, "뚜렷한 질적 비약이 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평하고 있었다.[12] 황석영 역시, "항쟁 이후의 문학"이 여러 진전의 조건을 확보해가고 있음에도, "신인들의 창작 역량이 성장하고 있지 않으며, 여간해서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소설가가 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혹평을 내리기도 했다.[13] 그렇다면 이러한 혹평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임헌영은 주로 6월 항쟁을 직접 재현한 작품을 근거로, 당대 소설에 대한 평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다.

> 6월 항쟁의 소설들은 중산층적·지식인적 관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참여자들이 필연적인 준비된 운동 주체가 아닌 (혹은 주체였다 해도 그게 가려져 있다) 우연성에 의존했거나 관람자적 입장이었다는 점 또한 아쉬움을 남긴다. (…) 결국 6월 항쟁은 학생과 노동자를 비롯한 선진적인 민중들의 혁명 의지에 대한

11) 윤지관,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 1990년 가을호(통권 19호), 실천문학사, 1990.9, 201면.

12) 백낙청,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 비평』 1989 봄(통권 63호), 창작과 비평사, 1989.3, 67면. 참고로 백낙청은 "문학사의 단계변화는 이따금씩 어떤 작품의 출현으로 일거에 성취되는 수도 있으나 대개는 정치사의 진전보다 더욱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당대 소설의 (미)성취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완만하다는 판단 속에는 문학에 대한 특정한 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만큼, 기실 당대 소설의 미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성의 관점으로는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소설의 새로운 면모가 분출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13) 황석영, 「항쟁 이후의 문학」, 『창작과 비평』 1988 겨울(통권 62호), 창작과 비평사, 1988.12. 56면.

> 반혁명적 대응으로 그 제1막을 내린 것일까. 그러나 그 가려진 막 뒤의 역사적 변혁 주체들을 그릴 수 있는 작품이야말로 참다운 6월의 이념에 접근한 것이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14]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의 주체'가 아닌 '관람자적 입장'에서 쓰인 작품들은 '역사의 사명'을 담지할 수 없다는 평가였을까? 그렇다면 '역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떠맡을 수 있는 현실적·미적 조건이란 무엇일 수 있는 것일까? 소설의 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자'와 같은 '선진적인 민중들'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중산층적이며 지식인적 관점'에 입각하여 서술된 창작행위라면,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 분명 당대의 관점에서는 노동자와 운동권 학생을 내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여겨지지 않는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에 대해서는—진영을 막론하고—상당히 혹독한 평가를 내렸던 것 같다. 바로 이러한 급진적 낭만주의는 항쟁을 전후한 시기동안 여전히 문학장의 헤게모니를 지배[15]하고 있었으며, 역사 변혁의 주체 구성 문제가 현실적이면서도 미적인 화두로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쟁 이후, 문학의 변혁은 역사 변혁의 주체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역사적인 변혁의 순간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있던 적지 않은 수의 소시민(?)-대중의 다양한 양태들이 포착되거나 집중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을 수도 있다. 즉 항쟁 이후 소설의 성취는 변혁적 역사인식이 직접적으로 재현되는 국면 속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

14) 임헌영, 「6월 항쟁 소설의 정치학」, 『문학과 사회』 1988년 가을호(제3호), 문학과지성사, 1988.8, 1173-1174면.

15) 앞서 언급한대로, 당대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진영 논리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백낙청과 같은 창비 계열 논자들은 노동문학 특유의 급진성, 이를 테면 당사자성(민중적 민족문학론)과 당파성(노동해방문학)을 내세우는 논의들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또한 문지계열과도 결이 다른 태도였다.—물론 이들은 노동문학의 위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하지만 이 논문에서 짚어두고자 하는 것은 ①당시 한국문단에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역사변혁의 사명을 떠맡을 수 있는 문학적 주체의 성립을 일종의 과제로서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②저마다 주장하고 있는 상이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과 '노동자' 이외의 소설적 인물 형상화에 대해서는 '중산층적 혹은 관찰자적 태도'라는 일관된 (저)평가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혁적 시간의 바깥에서 이를 어떻게 관찰하거나 방관했는지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장(field)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도 살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항쟁 이후의 소설사적 성취를 역사 변혁의 직접적인 반영으로서만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살피기 위한 문학적 실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주체 형성의 임계를 사고해보기 위한 시도 역시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항쟁 이후의 문학은 다만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이후의 경과를 직접 발화하는 것을 통해 정치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항쟁의 시간 속에서 다소 물러나 있던, 그럼에도 다만 외면하지 않고 사건의 현장을 주시하거나 목도하고 있던—또한 항쟁의 성공을 숨죽여 기원하고 있던—'나약한 평범성'의 다기한 존재의 양태들 속에서 문학 특유의 정치성이 발휘되고 있었다는 사실들로부터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랑시에르는 문학을 재현 체계의 규범과 위계들뿐만 아니라, 인정과 평가의 틀 구조를 포기하는, 그 가능성의 체계로 살핀 바 있다.[16] 어쩌면 6월 항쟁의 소설적 성취는 당대의 문단에서 발언의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되지 못했던 자들의 문학적 권리를 일정하게 회복케 함으로써, 가장 정치적이지 않은 장소로부터 문학의 정치성을, 그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확보케 하는 것의 이름일 수 있다. 지금 살펴볼 작품의 주인공들 역시 6월 항쟁의 중심에 서있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변혁의 순간을 '관망'하거나, 중산층적 욕망에 사로잡혀 '변심'하기도 하고, 그도 아니면 '좌절' 속에서 참여 자체를 망설이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김만옥의 「보청기」[17]는 항쟁의 와중에 운동권 딸을 둔 주부의 불안심리가 작품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작품이다. 김남일의 「명동부루스」[18]는 6월 항쟁 전후에 변절한—것으로 의심되는—운동권 선배를 우연히 마주친 후배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최민희의 「성난 휠체어」[19]는 공장에서 다리를 잃은 산업

16) 주지하듯 랑시에르에게 미학적 예술 체제란, 재현 체계의 붕괴, 다시 말해서 주체들의 품격이 재현 장르들의 품격을 지배하던 어떤 체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2008, 43면.
17) 김만옥, 「보청기」, 『실천문학』 1988년 여름(통권 10호), 실천문학사, 1988.
18) 김남일, 「명동부루스」, 『실천문학』 1988년 봄(통권 9호), 실천문학사, 1988.

재해 노동자의 좌절을 그리고 있다. 이들 간에는 계급적인 위치와 세대적인 측면에서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20] 이미 중산층인 주부와, 중산층을 욕망하는 변절자, 하층계급 산업 재해 피해자 간에는 공동의 경험도, 공통의 의식도 부재하기에 당대를 살아가는 익명의, 복수의 개인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통점도 있는데 이들은 항쟁의 바깥에 위치하면서도, 항쟁의 대의로부터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항쟁은 딸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산업 재해 보상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주시되고 있는 것이다. 항쟁과 항쟁의 대의 사이의 간극이 항쟁 바깥의 주변적 존재들의 주시 속에서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어떠한 역사의식 위에 서있는 것일까? 「보청기」의 주부는 자신의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 육십년 사월에 우리가 서툴게 작성했던 답안지를 이듬해 오월에 가차 없이 가위표로 채점당하고 과단성 있는 영도자의 수정된 답안지를 보며, 과연 실력 있는 답안지구나 감탄하며 고개 끄덕이며 몇 년을 살았고, 이미 잘 살고 있는데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무슨 뚱딴지냐 투덜거리며 또 몇 년을 살았고, 강가 아파트 뜰에 자고나면 불어나 있는 자가용 자동차의 숫자를 새벽마다 세어보며 차곡차곡 불어나는 사실을 뿌듯해하며 또 몇 년을 살았다.

6월 항쟁의 격동 속에서 그녀가 4·19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딸이 운동권일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의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딸의 안위가 걱정되면서도, 자식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까 하여, 쉽사리 만류하지 못하고 있었다. 4·19 정신에 동조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그때의 혁명이 가져다 준 '자유의 수혜'를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딸과 잠시라

19) 최민희, 「성난 휠체어」, 『창작과비평』 1988 여름(통권 60호), 창작과 비평사, 1988.
20) 이 장에서 다룰 세 작품은 분명 작가가 속한 세대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다. 김만옥은 '4·19 세대 소설가'이며, 김남일은 '386학생운동 출신 작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최민희는 『말』의 기자였다. 그럼에도 이들 작품에는 각자가 인식하고 있는 6월 항쟁의 기억과 경험이 변혁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주변적 위치'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변혁의 주변으로부터 변혁의 실상이 조명되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점에 천착해보려 했음을 다시금 밝혀두고자 한다.

도 동행하기 위해 치과로 향한 그녀는 '병원 안의 평온'과 '병원 바깥의 비명' 속에서 어느 한 곳이 '비현실'일지 생각기도 한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비명 소리가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최루탄의 흔적을 찾는다. '최루탄 냄새'야말로 고통스러운 현실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보청기」의 그녀가 중산층적 시선에서 운동권 딸을 매개로 항쟁의 대의에 접근해갈 때, 「명동부루스」의 김경태는 외려 중산층적 욕망에 휩쓸리는 존재로 그려진다. 「명동부루스」는 운동권 선배를 관찰하는 여대생의 시선 속에서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선배의 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열혈 운동권 학생→대학원 입학→구속 후 변절(의심)→학원가→(6월 항쟁 중에 데모중인 모습 발견)→노무 관리직"이 그것이다. 김경태는 학생 운동권의 지도 세력 교체시기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변절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그가 6월 항쟁의 격동 속에서 다시 발견됐다는 사실에 있다. 즉 김경태는 6월 항쟁에 참여한 (현재는) 운동세력이 아닌 민중의 한 면모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경태는 6월 항쟁이란 거대한 격동을 통과한 이후,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다수의 시민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 6월 항쟁은 직선제 쟁취라는 제한된 의미의 목적을 완수한 뒤 중산층의 안정심리—혹은 중산층에의 욕망—속으로 흩어져 버린 열망에 다름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관찰한 여학생은 어떠할까. 그녀는 운동권 학생으로서 6월 항쟁에 참여하고, 이후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을 하지만, 종국에는 지식인의 허상만을 깨닫고 운동에 실패한 뒤 일상으로 돌아온다. 만약 그녀가 「보청기」에서 중산층 가정의 운동권 딸이 작품의 화자로서 (재)등장한 것이라면,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될 수 있을까?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김경태나 자신의 어머니처럼 중산층의 욕망에 포섭될 것인가? 어떤 면모가 더 '평범한 것'인가? '평범한 삶'과 '변절된 삶'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

이처럼 「명동부루스」는 6월 항쟁 이후, 노동 운동에 투신하지만, 그곳에서 이미 학출의 폐해를 경험해버리고, 현장을 그만둔 자의 시선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기에 김경태의 변절 역시 실제 사실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으로 암시되기도 한다. 이 오해의 간극이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 만큼, 변절로 오인되고 있다는 그 자체의 의미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노동 현장에서 나온 작중 화자는 명동 거리의 한 술집에서 김경태를 또다시 보게 된다. 술주정을 하며 그는 자신이 마산의 노사관리 직으로 전근조치 당한 일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다. 주지하듯 마산 창원 지역은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로 그해 겨울 지역노조연합인 마창노련이 결성된 곳이자, 곧 닥칠 공안 정국에서도 노동운동을 선도했던 지역이다. 사실상 화자나 김경태가 그들이 한때 변혁운동의 주체로 믿었던 노동계급은 전진하고 있지만, 1년도 채 안되어, 정작 자신들은 변혁의 노선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서 6월 항쟁의 상징적 장소였던 명동 역시 '블루스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변절자에 대한 의심은 결국 작중 화자 자신의 좌절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노동 운동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통해 반대로 변혁의 사명을 표상해내고 있으며, 노선으로부터의 이탈(들) 속에서도 정치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마산이란 장소를 환기함으로써, 기념비적인 저항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노동소설이 역사 변혁의 책무를 떠맡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21]

한편 6월 항쟁 이후 이 항쟁을 주요한 서사적 계기로 환기하는 문학군은 단연 노동소설이었다. 「성난 휠체어」는 그 군에 속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6월 항쟁이 산재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에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에 입각해 있다. 다만 여기서도 투쟁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

21) 김예림은 6월 항쟁을 재현하고 있는 소설들의 '마주침' 모티프에 천착하여, 노동자계급과 중간층의 정치화 가능성 및 두 사회세력 간의 관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포착 가능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즉 6월 항쟁이라는 사건의 현장에서 봉기 그 자체와 마주친 주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핌으로써 중간층-노동자 연대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예림, 「'마주침'에 대하여—6월항쟁의 소설적 재현」, 『민족문학사연구』 제61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 하지만 이러한 마주침에는 중간층과 노동자 간 '연대의 불가능성'만이 아니라, '이행의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끝내 완수되지 못한 운동사적 대의가 일상의 제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는 양상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항쟁 이후 정치의 전장이 되고만 여러 층위의 일상들을 살피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기보다는 오히려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성난 휠체어」의 영준은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병원에서 좌절 속에 살고 있다. 그의 좌절은 한편으로는 무용지물이 된 자신의 두 다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지키려 했던 애인의 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회사에서는 보상금 합의를 위해 협상을 가장한 협박을 해오는데도, 영준은 여전히 무력할 뿐이다. 반면 병원의 다른 산재 피해자 동지들은 6월 항쟁의 열기 속에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휴업급여 100%인상", "장해보상 현실화", "산재근로자 우선 취업 보장"등의 요구를 내건 것이다. 하지만 영준은 동지들의 권유에도 투쟁에 합류하길 망설인다. 그는 자신의 현실을 '불운'으로 돌리며, 아무 일에도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우선 "휠체어"의 상징성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신체를 훼손당한 자들이 항쟁의 격동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집회란 그 속에서 외쳐지는 구호 이전에 이미 발화의 한 형식으로서 수행적인 의미가 획득되는 것이라고 짚어낸 바 있다. 즉 인민은 "추상적 권리를 담지한 주체"로 거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에겐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을 인민으로 구성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육체적 실천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몸들의 실천은 당연히 진술될 수 있지만, 집회 자체가 이미 그런 진술에 해당하며, 누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함께 모여든 다수의 몸들로 인해 의미를 갖게 된다."[22] 그런 의미에서 "(성난) 휠체어"라는 소재는 단순히 신체를 훼손당한 자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산재 피해자들에겐 휠체어와 휠체어의 다수성이 모든 정치적 주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동료의 자살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투쟁에 합류하기로 한 영준의 다짐 속에는 자신의 신체 이외에는 아무런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들의 비애가 새겨져 있다. 신체를 훼손당한, 그리하여 자신의

22) 주디스 버틀러, 서용순 외 옮김, 「우리, 인민-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91-92면.

전부를 상실한 자의 죽음(사회적 타살) 속에서 '휠체어'를 움켜 쥘 힘이 확보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집회에 적극 투신할 때마저도 여러 형태의 부상에 노출될 수 있다. 집회에서 몸의 노출은 한편으론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반대로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휠체어는 산재 피해자 자신의 정치적인 의지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인민 다수의 저항하는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 의미에서 「보청기」의 그녀가 청력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시국에 대한 불만" 여부를 묻는 것은 난청의 의미가 함의하고 있는 몸의 저항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집회는 나의 주변에서 행위하고 외치는 몸짓과 구호를 당장 보고 들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국가의 폭력 속에서도 개인이 살아 있는 한 '억압불가능한 최소(스피노자)'는 항시 잠재한다. 이처럼 익명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저항 가능성의 '최소한의 조건'은 항쟁의 바깥에서 이를 관망하는—비범하지 않은 다수의—존재들로부터 확보 가능하다. 국가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개인들의 최소한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변혁의 주변'에서도 탐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6월 항쟁 소설의 정치학은 정확히 이 점을 짚고 있었다.

3. 항쟁 이후의 일상과 세대인식의 간극

살핀 것처럼, 변혁의 실상은 오히려 변혁의 주변으로부터 포착될 수도 있다. 문학의 정치란 항쟁 이후 정치·경제적 전환의 효과를 삶의 구체적 양상 속에서 포착해 내는 것에 다름 아니며, 그 속에서 역사 변혁의 주체를 다층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다층적이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시피, 운동권 학생이나 노동자 계급 이외에 오히려 문학적 권리가 확보되고 있지 않았던 복수의 시민적 주체화의 양식들을 다기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항쟁의 정치·경제적 의미가 문학적인 차원에서 전유-점유된 양상 속에서 형성된 것이면서도, 반대로 문학적 차원에서 포착된 체제 전환의 일상사적 효과가 항쟁의 정치한 의미를 역으로 추인케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

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항쟁 이후의 일상 속에서 변혁의 사명이 어떻게 세대적인 갈등을 통해 묘사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끝내 완수되지 못한 운동사적 대의가 일상의 정치로서 다시 제기되는 사태를 탐색하는 작업이면서도, 항쟁의 시간을 전혀 다르게 경험한 자들 간의 감정 편린과 거기에 내재된 '다른' 정치성을 고찰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향숙의 소설집 『수레바퀴 속에서』[23]는 항쟁 이후의 일상을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을 주로 담고 있다. 항쟁의 과정에서 희생된 운동권 학생을 둔 부모의 관점에서 작품이 서술되거나, 국가 폭력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가족 문제를 통해 변혁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향숙 소설의 이러한 특징은 한편으로는 항쟁 이후의 일상이 조명될 수 있는 관점을 세대론의 입장에서 취하려는 소설적인 시도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변혁의 시간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거나 기록하고 있는 그 시차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항쟁의 실상을 다층적으로 파헤쳐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작품집이 출간된 직후의 상반된 평가도 김향숙의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이를 테면, 김향숙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해당 시대를 전환기라고 파악할 때, 그 "전환의 구체적 양상은 급진적인 변혁의 열망과 개량주의적인 진보의 노력, 반역사적이고 반동적인 시도들이 뒤엉킨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녀의 소설은 "현실의 이러한 다층적인 복합성을 고려할 때, 이념적 도식에 기대지 않고 삶의 실질적인 감각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관찰자적 성실함이라는 미덕이 오히려 현실의 핵심적인 모순을 비껴가는 결과를 낳거나 고통의 간접화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동시에 지적받기도 했다.[24] 또한 "세대 간에 생겨날 수 있는 80년대 시류적 풍속도를 여과시키면서 사회전반에 깔려 있는 사회적 동기의 심각성을 가족구성원의 마찰계수를 통해 가늠"하고 있으면서도, "(변혁의) 출발선에서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볼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논리가 작가에게 은밀히 다가감으로써 의

23)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 창작과 비평사, 1988.
24) 이광호, 「(해설) 전환기 삶의 심리적 현실」, 『수레바퀴 속에서』, 창작과 비평사, 1988, 300면.

미 있는 몸짓으로 내용을 채우지 못했다"는 한계가 아울러 평가받기도 했다.[25] 백낙청 역시, 『수레바퀴 속에서』에 대해 "작가의 비판의식이 시민계급적 또는 소시민적 차원에 한정되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민중적 전망이 시원스레 열린 경지에는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6] 이때 '민중적 전망'이란, 물론 당대의 변혁적 사명을 담지할 만한 민중 주체의 재현 문제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글에서는 김향숙 소설의 성취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민중 주체의 다기한 형상들을 재현하는 것에 있었다는 점을 밝혀보려고 한다.[27]

김향숙의 단편 「동시대인」, 「불의 터널」, 「가라앉는 섬」은 모두 운동권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의 시점에서 서사가 전개된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자녀들은 항쟁의 과정에서 분신이나 투신을 하여 목숨 잃었거나 위태로운 상태이며, 그도 아니라면 감금된 이후 수치스러운 고문과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 그들의 부모들은 우선 자신의 자녀에 대한 "무지"를 토로하며 서사에 등장하는데, 이를 테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 속 썩인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이"였으며, "대학을 졸업하

25) 이상금, 「김향숙論: 문학, 삶의 이해를 위한 기관」, 『오늘의 문예비평』 1991・겨울호(통권 4호), 지평, 1991.12, 101면, 111면.

26) 백낙청, 앞의 글, 1985.10, 77면. 최근에는 김향숙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중산층 가족과 여성 문제에 집중하여 1980년대 소설사에서는 다소 독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점들을 파헤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테면 손유경은 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의 삶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떠난 후 생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면이 복원됨으로써 폭력과 대항 폭력이 닮을 수밖에 없는 1980년대 현실의 부면을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자은은 김향숙 소설에서 등장하는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을 관찰함으로써 정치의 전장이 된 가정 문제의 당대적 의미를 살피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앞선 연구의 성과들을 적극 수용하되, 김향숙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대문제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녀의 작품들이 항쟁 이후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역사 변혁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정치성을 획득하게 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조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유경, 「사후(事後/死後)의 리얼리즘—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5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27) 여기서 다루고 있는 김향숙의 작품들은 모두 그녀의 소설집 『수레바퀴 속에서』, 창작과 비평사, 1988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면 좋은데 취직해서 엄마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한 선량한(?)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 소설을 관통하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몸만 내가 만들어놓았을 뿐 그 안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의아함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녀와 부모 세대 간의 의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어머니, 저는 빨갱이도 나라의 역적도 아니예요."[28]

> "엄마와 나 사이에는 벽이 있다. 일상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맴돌았던 어머니, 답습되어서는 안 될 삶의 양식."[29]

> "두렵다. 이렇게 가슴이 떨려본 적은 없다. 앞서 간 열사들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가지셨는지 알 것 같다. 망설여진다, 어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린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만약 내가…… 어머니는…… 하지만 안 된다. 마음을 굽혀서는…… 더 큰 어머니를 위해……"[30]

운동권 학생들은 부모(세대)에게 "빨갱이"나 "나라의 역적"으로 몰리고 있으며, "엄마와 나 사이"의 돌이킬 수 없는 장벽을 느끼며 항쟁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 그들 눈에 부모들은 "일상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만 맴도는 기성세대일 뿐이며, "답습되어서는 안 될 삶의 양식"을 체현하고 있는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에 다름 아니다. 자녀들이 사회의 모순에 눈을 뜬 자들로서 자임하고 있는 반면, 부모들은 주로 자식에 대한 무지를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앎의 불균형이 세대적·서사적 긴장을 지지하고 있는 구도로 현상하고 있다. 이는 자녀들에겐 자신의 부모가 "가족이기주의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더 큰 어머니를 위해" 마음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임수경의 편지는 "조국의 딸"로서 역

28) 김향숙, 「가라앉는 섬」, 앞의 책, 56면.
29) 김향숙, 「가라앉는 섬」, 같은 책, 70면.
30) 김향숙, 「동시대인」, 같은 책, 19면.

사의 책무를 떠맡으려는 사명을 내세우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부모의 자식이라는 가정적 위치에서 발화가능토록 강제되고 있는 운동권 학생이 처한 국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에 반해 그녀의 부친은 가정을 보살피는 부모의 직분에 입각하면서도, 국민을 향해 자녀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로서 현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운동권 학생-자녀'와 '가부장-부모' 간의 이러한 불균형과 그 전형성이 김향숙의 소설에서도 일정하게 반복되거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운동권 학생의 대의는 가족 윤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리되고 있는데 반해, 부모의 무지는 오히려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르는 일종의 반역으로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도된 불균형'이야말로 운동권 자녀를 둔 부모세대의 비극이 서사화 되고 있는 입각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김향숙 소설에서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의 여지를 쉽게 놓지만은 않는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間) 공간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인지해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그려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는 때론 내적 갈등이 외화된 형태로 묘사되기도 한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 녀석은 아예 정치판으로 나서겠다고 정신없이 싸돌아댕긴다 이거여. 인제서부턴 차분히 학업에 매진하라는 애비 말 따위는 마이동풍인 채로 감옥에 갔다온 것이 불효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외려 큰소리여. (…) 근자에 젊은이들이 제 목숨 벌기를 휴지조각 버리듯 하는데…… 자네 같은 인사들이 그 일을 칭송하는 논지로다 글을 써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시. 아무리 큰 뜻을 위해서라 하더라도 그렇지.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살자고 받은 목숨을 왜 내번지냐 이 말여."[31]

"아니 저 늙다리 영감탱구 말하는 것 좀 보소. (…) 왜 열사들 명예를 더럽히려드는 게야. (…) 내 아들이 지 몸을 불살랐던 그날도 정말로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합니다. 온몸에 석유를 붓고 한 손에 성냥을 들고 가까이 오면 분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경찰놈이 어디 죽을 용기 있으면 죽어보라고 비웃고 돌멩이까지 던지며 심하게 다그쳤다지 않소. 꼭 죽을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려는 그놈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놈들은…… 그놈들은……"[32]

---

31) 김향숙, 「동시대인」, 같은 책, 23면.
32) 김향숙, 「동시대인」, 같은 책, 27면.

「동시대인」의 주인공 남자는 재수를 하던 아들이 투쟁의 일환으로 투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 자신이 운동권 학생들을 취조했던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정작 자신은 "환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자책과 혼란, 분노를 수습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쩌자는 작정도 없는 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나와 거리로 향한 그는 우연히 "연탄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하는 "실비밥집"으로 들어선다. 바로 그곳에서 위에서 인용한 "가게 안주인"과 "새마을모자를 쓴 중늙은이" 간의 시비를 '멍한 눈'으로 응시하게 된다. '중늙은이'는 "서울대핵교에 입학"을 시켜놓았더니, '학업은 커녕 데모를 하다 감옥까지 갔다온 아들'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었는데, 이를 들은 "안주인"이 분통을 터트린다. 열사로 불리며 분신한 자신의 아들은 국가 폭력에 희생자이기에, 철없는 젊은이의 순진한 혈기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요지였다. "중늙은이"는 이에 굽히지 않고 "사회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 그런 것만 염두에 두고 살아서는 반쪽 인생이 되기 십상"이라고 몰아세우고, '안주인'은 "이 세상이 이날 이때꺼지 있는 놈, 기운 센 놈 천지였던 것이 바로 청풍명월 같은 소리"만 읊는 "영감탱이 같은 종자"때문이라며, 성토하고 있는 것이다.

'안주인'과 '중늙은이'의 대화는 그들 모두 운동권 학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주인공 남자의 내면적 분열이 외화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들의 투신(과 그를 막지 못한 자신)을 불온하게만 보는 공무원 동료들의 행태 속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기에 대한 환멸이 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투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분노가 혼합되어, 내면적인 분열이 야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주인'과 '중늙은이'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 이 의도치 않았던 외적 계기에 의해, 비로소 그가 직면해야만 하는 운동권 아들을 둘러싼 시선의 교차가 그 전모를 드러내고 만다. "개인의 의도된 포착에서 벗어나는 이 탈-중심화된 중핵이 궁극적으로 자기의식 자체"[33]라는 지젝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안주인과 중늙은이의 간극은

33) 슬라보예 지젝, 김영찬 외 옮김, 「코기토와 성적 차이」,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05, 181면.

운동권 학생을 둔 부모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시작되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가령 「가라앉는 섬」의 작중화자인 여자는 운동권 학생인 딸이 취조되는 과정에서, 자기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돌발적인 계기에 의해 자신의 지난날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여지를 찾게 된다. 그 자신은 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무지했으며, 그리하여 가정에 충실했다고 생각했던 엄마이자 딸로서의 입지 자체가 뒤흔들리는 사태 속에서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집나간) 딸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 "죽음과도 같은 잠을 잘 수 있다면…… 중얼거리던 여자는 소원인 잠의 덫에 마악 갇혀드는 순간 느닷없는 생각에 붙들렸다. 딸을 부러워하고 있다는."[34]

이처럼 항쟁 이후, 운동권 학생 가족 서사는 사회적 의식의 수준과 방향에 대한 세대적인 간극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차이의 간극 속에서 이해의 계기를 확보하려는 어떤 실마리를 잡으려는 의지를 내재하고 있다. 이때의 의지는 일종의 '무지의 대가'로써 가족의 해체라는 주어진 현실을 감내해야지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이기에, 존재 이행—가정적 존재로부터의 비약—의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쩌면 이러한 이해에 대한 모색은 불가피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항쟁 이후에도, 혹은 운동권 자녀와의 이별 이후에도, 삶과 일상은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불의 터널」은 항쟁 이후, 일상의 회복이라는 과제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그 참혹한 일상성의 폭력이 섬세히 재현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인 운숙은 운동권 학생이었던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은 떠나버렸고, 이제 집에는 딸인 혜현만 남았지만, 그녀마저도, 서둘러 결혼을 하려고 한다. 결혼을 통해 가족문제로 대변되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운숙은 혜현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쉽기도 하

34) 김향숙, 「가라앉는 섬」, 앞의 책, 89-90면.

다. 그런데 힘겹게 상견례를 나간 자리에서 죽은 아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상대측 부모는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 "그 순간 은숙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참기 어렵도록 강렬하게. 딸도 현태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딸에 의해 아들이 또 한 번 죽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았던가. 그 때처럼 사람이 혐오스러웠던 적이 달리 또 있었을까. 밝고 명랑하면서도 예의바른 딸의 태도, 영특함과 선량함이 조화를 이루었던 현태의 모습이 징그럽고 못나 보이기만 했던 것이다."[35]

운숙은 딸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아들의 삶과 죽음 모두가 부정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된다. 사윗감이었던 현태의 아버지가 바로 국가 폭력의 대리자였던, 그리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공무직 소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현태씨 아버지가 하시는 일 때문에… 현태씨와 헤어질 수는 없었다"고 고백하는 딸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운숙은 생각한다. "오래비의 죽음을 잊지 않았다면 현태 아버지와의 연을 피했어야 했다고.." 그녀는 "심장이 잘게 조각나는 듯한 아픔"을 토해내고 만다. 이처럼 항쟁 이후의 일상이란, 살아남은 자들의 남겨진 나날만이 아니라, 이미 희생된 자들의 죽음마저도 위태로워지는 사태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다. 언젠가 벤야민은 "죽은 자들도 적이 승리한다면, 그 적 앞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36] 항쟁 이후라는 시간은 항쟁으로 희생된 자들의 넋과 그 넋의 의미를 망각하려는 가장 보통의 폭력 속에 항구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가해와 피해의 관계는 얽히고, 삶과 죽음의 차이는 소실되기도 한다. 하지만, 혜현의 일상도 회복될 필요가 있지는 않겠는가. 죽은 넋을 정당하게 애도해야하는 과제만큼 살아남은 자들의 남겨진 나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항쟁 이후의 일상이란 이처럼 쉽게 회복될 수도, 훼손될 수도 없는 상황의 여러 엇갈림들

35) 김향숙, 「불의 터널」, 앞의 책, 48면.
36)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권, 길, 2008. 334면.

이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교차·회전하는 "수레바퀴 속에서의 여러 날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항쟁 이후,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처럼 애달프다.

한편 김향숙의 단편 「의인의 돌」은 국가 폭력의 대리자로 암시되는 자의 가족, 정확히는 가해자의 어린 아들의 시선으로 본 항쟁 이후의 시간들을 담담히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종하는 "4·19의거로 민주당이 제2공화국을 세웠으나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사회가 혼란해져 마침내 5·16혁명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게 되었다"는 사회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학생이기도 하다. 하지만 항쟁 이후, 공무원 아버지의 "더러운 손"이 폭로되고,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간다. 작품은 바로 그 몰락의 과정에서 종하가 반공주의자의 전형으로 묘사되는 할머니의 대한 의심을 막연하게나마 감지해 나가는 서사로 귀결되고 있다.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할머니의 말이 내재하고 있는 어떤 폭력성이 불안하게 인지되는 순간,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동생 종혜의 "끔찍한 비명소리"로 서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앞선 작품들과는 달리—부모세대의 시선 속에서 국가 폭력의 희생에 대한 애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해자의 아들 입장에서 폭력의 대가가 어떻게 대속 불가능한지, 나아가 그 불가능성 속에서 또 다른 일상의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다만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얽혀 있는 항쟁 이후의 상황을 지시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변혁의 시간 바깥에서 회복되어야 할 일상성의 성격이 얼마나 상이하고 때론 저마다 대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향숙의 소설은 항쟁 이후의 시간 속에서 전개된 한국사회의 변혁을 다만 관찰하기보다는, '변혁의 주변'에서 '정치의 전장'이 되고만 일상 회복의 의미를 묻고 있다. 다시 말해 항쟁 이후의 시간 속에서 전개된 변혁에 대한 세대의식의 격차를 통해, 정치·경제적인 차원으로는 해명될 수 없는 삶의 부면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삶의 부면'이란 주로 가족의 해체라는 사태로 표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회복이란 다만 기성 질서로의 회귀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반대로 항쟁 이후의 일상이란 끝내 완수되지 못한 사회적 대의가 일상의 제 영역에서 어떻게 다기한 방

식으로 정착되거나 변모하게 되었는지를 불가피하게 마주해야만 하는 연속된 시간을 의미하게 된다. 항쟁 이전을 회고하는 방식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전망 모두가 일상의 영역에서 어떤 '경험의 기록'과 '감정의 편린'으로 남게 되었는지 김향숙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의 정치란, 정치·경제적 대의를 다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대의와 일상의 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장 보통의 사람과 사연들에 대한 탐색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혁의 주변에서 변혁의 실상을 감지하고 있는 김향숙의 소설들이야말로 문학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4. 결론을 대신하며
—변혁의 주변에서 6월 항쟁과 체제 변혁의 의미를 다시 묻는 방법

과연 6월 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긴 것일까? 항쟁 이후, 그 변혁의 시간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으며, 문학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구체적 실상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변혁의 주변적 존재들로부터 변혁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자 한다. 즉 항쟁 이후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체제 전환 효과를 사회문화적인 규범의 생산 및 그것의 형성과 수용을 둘러싼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과 경합의 양상을 표상하거나 유인하고 있는 문학적 재현을 탐색해보려 한 것이다. 항쟁이란 삶의 변혁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때, 그 변혁은 아래로부터 탐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어쩌면 문학이야말로 그러한 탐색을 가능케 하는 어떤 정치성을 내재하고 있는 예술형식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6월 항쟁은 87년 체제 성립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의미화되곤 한다. 이때 87년 체제란 대개—정치방면에서의—권위주의 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체제는 정치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87년 체제는 시대적·국민적 과제가 된 민주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힘과, 그것을 제약

하면서 개발독제체제의 붕괴가 아닌 타협적 재편 및 변형된 재생산을 지양하는 힘이 각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6월 항쟁은 군부독재체제를 붕괴시켰지만, 권위주의적인 지배 집단들이 구체제를 변형적으로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37] 이런 의미에서 87년 체제는 아래로부터의 힘에 의해 민주주의적 공간을 창출한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공간에 대한 규칙이 위로부터의 타협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레짐(regime)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87년 체제라는 것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고립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역동적인 사회체제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민중의 힘과 이를 규율하면서 시민사회에 다기하게 존재하는 민주개혁적 의지를 제도적인 차원으로 제한하려는 보수・지배블록 간의 경합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와 정서를 조율하는 기제나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들 또한 발명되고 있었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기제들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생산하며, 그러한 규범을 둘러싼 헤게모니 전략의 각축장이 문화적인 영역에서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87년 체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레짐으로만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고, 사회문화적인 부문에서의 전환은 충분히 탐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금껏 지적되기도 한다.[38]

따라서 이 글은 6월 항쟁 이후 87년 체제의 성립과정에서 초래된 문화적 지형의 변화를 일상의 영역에서 포착하기 위한 방법 하나를 제안한 것이었음

37) 조희연, 「'87년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87년체제론』, 창비, 2009, 76-77면.

38) 김종엽은 87년 체제의 문화적인 전환 효과가 충분히 탐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분명히 하며, 이와 관련된 몇 가지의 탐구 과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1987년 이후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대중소비사회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전환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기에 생활양식의 변화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분출한 문화담론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밖에도 다양한 정체성 탐구, 상징적 투쟁들, 역사적 기억의 투쟁들 또한 변화된 문화적 지형을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라 말하고 있다. 김종엽, 『87년체제론』, 창비, 2009, 134면.

을 짚어두고자 한다. “변혁의 주변에서”는 그 방법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체제 변혁의 효과를 아래로부터 다시 인식한다는 것은 ‘항쟁 이후’의 시간 속에서 노동자와 여성, 도시하층민 등을 포함한 민중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권력관계와 억압을 쟁점화하고 있는 구체적 양상을 살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살펴본 변혁에 대한 ‘세대인식의 격차’라는 프리즘으로 항쟁 이후 변화된 일상의 다층적인 성격을 모두 탐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항쟁을 기억하는 상이한 방식들과 일상을 회복하려는 여러 의지들이 어떠한 ‘경험의 기록과’ ‘감정의 편린’으로 남겨지고 있었는지를 살피고자 했던 ‘작은 시도’였음을 밝히며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노동해방문학』, 『동아일보』, 『문학과 사회』, 『문학예술운동』, 『민주법학』, 『오늘의 문예비평』, 『창작과비평』, 『한겨레』.

김남일, 「명동부루스」, 『실천문학』 1988년 봄(통권 9호), 실천문학사, 1988.
김만옥, 「보청기」, 『실천문학』 1988년 여름(통권 10호), 실천문학사, 1988.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 창작과 비평사, 1988.
최민희, 「성난 휠체어」, 『창작과비평』 1988 여름(통권 60호), 창작과 비평사, 1988.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문학예술운동』 제1집, 풀빛, 1987.8, 62-109면.
김예림, 「'마주침'에 대하여—6월항쟁의 소설적 재현」, 『민족문학사연구』 제61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 281-309면.
김종엽, 『87년체제론』, 창비, 2009.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 5권, 길, 2008.
백낙청,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작과비평』 부정기간행물 1호(통권 57호), 창작과 비평사, 1985.10.
_____,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비평』 1989 봄(통권 63호), 창작과 비평사, 1989.3.
손유경, 「사후(事後/死後)의 리얼리즘—김향숙 소설의 "살아남은 딸"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35-61면.
슬라보예 지젝, 김영찬 외 옮김, 「코기토와 성적 차이」, 『성관계는 없다』, 도서출판b, 2005.
오자은, 「중산층 가정의 데모하는 딸들—1980년대 김향숙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5집, 한국현대문학회, 2015, 413-449면.
윤지관,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 1990년 가을호(통권 19호), 실천문학사, 1990.9.
이광호, 「전환기 삶의 심리적 현실」, 『수레바퀴 속에서(해설)』, 창작과 비평사, 1988.
이상금, 「김향숙論: 문학, 삶의 이해를 위한 기관」, 『오늘의 문예비평』 1991·겨울호(통권 4호), 지평, 1991.12, 99-118면.
임헌영, 「6월 항쟁 소설의 정치학」, 『문학과 사회』 1988년 가을호(제3호), 문학과지성사, 1988.8.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옮김,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2008.
조정환, 「민주주의민족문학론에 대한 자기비판과 노동해방문학론의 제창」, 『노동해방문학』 창간호, 1989.4.
조희연, 「'87년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87년체제론』, 창비, 2009.
주디스 버틀러, 서용순 외 옮김, 「우리, 인민-집회의 자유에 관한 생각들」,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허 민, 「6월 항쟁과 문학장의 민주화: 해금 전후(사)의 역사인식과 항쟁 이후의 문학(론)」, 『기억과 전망』 2019 겨울호(통권 4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228-273면.
황석영, 「항쟁 이후의 문학」, 『창작과비평』 1988 겨울(통권 62호), 창작과 비평사, 1988.12.

【Abstract】

At the Periphery of Revolution —Intricate Formation of Political Subjects after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nd Mixed Perceptions by Generations—

Heo,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ing into the intricate forms of political subjects emerging in the novels which went through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 revolutionary period. The novels which are about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nd the 1987 Great Labor Movement do not directly reproduce moral bearers of revolution represented as university students and laborers. They rather claim that politics of possible literature was being sought by reproducing the chaos by those who had been hesitating at the threshold of revolution. In other words, they were not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 but 'waited and watched' the moment of revolution from nearby or 'changed their minds' after being captivated by middle-class desires and the stories of those who had been hesitating to partake in it amid 'frustration' from losing view were being captured. Such an aspect of reproduction reflects the different views toward the June Democracy Movement among generations and this brought about the cause of movement history being raised again in politics of daily lif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works which secure political character and democratic possibility of literature from the most unpolitical places by giving the portion back to those who did not have the right to speak in the 1980s novels which were seeking revolution. This will explore the social characters of the June Democracy Movement's (anti-) political reproduction aspects in detail.

Keywords: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87 worker great struggle, the middle class, generation gap, Hyangsook Kim, Democracy, politic-nature of literature, Su Kyung Lim.

접수일: 2020.03.31. || 심사일: 2020.04.10. || 게재확정일: 2020.05.18.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 / Director, Nojak Literature Museum.